

홈 개막전 멀티골... 손흥민 '골 사냥 영점' 잡았다

에버턴 상대 시즌 12호골 폭발
EPL 2라운드 홈경기 4-0 대승

“압박 술선수범” 팀내 최고 평점
“최고의 활약” 최우수선수 선정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새 시즌 개막 2경기 만에 12호골을 폭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의 네 골 차 패스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4-0으로 완파했다.

토트넘의 다득점을 이끈 선수는 주장이자 골잡이 손흥민이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중앙 공격수 도미니크 솔란케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전방 자원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멀티골로 대승에 앞장섰다.

경기 시작 14분 만에 나온 이브 비수마의 선제골로 앞선 토트넘에 손흥민이 25분 추가골을 안겼다. 성실한 전방 압박 끝에 나온 득점이었다.

에버턴의 베테랑 골키퍼 조던 픽퍼드에게 향한 수비진의 패스를 쫓아 손흥민이 부지런히 뛰었다.

문전에서 공을 누야낸 손흥민이 빈 골대로 침착하게 밀어 넣어 올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신고했고, 전매특허인 ‘찰락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홈팬들을 열광케 했다.

전반부터 2-0으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에도 실점 없이 2골을 몰아쳤다.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후반 26분 코너킥



토트넘 홋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이 2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특유의 찰락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상황에서 타점 높은 헤딩으로 3-0을 만들었다.

6분 후 또 한 번 손흥민의 빠른 발이 빛났다. 토트넘의 페널티지역에서 드와이트 맥닐의 침투 패스를 가로챈 수비수 미키 판더펜이 공을 몰고 전진하자 손흥민도 상대 후방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10초 만에 문전까지 전진해 패스를 받아 픽퍼드와 1대1 상황을 맞은 손흥민은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과 4-0 대승을 완성했다.

레스터 시티와 개막전 볼 터치 실수를 보이는 등 정교하지 못한 플레이로 일부 현지 매체로부터 혹평받은 손흥민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특유의 빠른 발과 골 결정력을 한껏 뽐냈다.

현지 매체는 손흥민에게 평점 9의 높은 평가를 내렸다. 1-0으로 앞선 전반 25분 부지런한 전방 압박으로 골키퍼 조던 픽퍼드의 공을 누야낸 장면이 특히 높게 평가됐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9를 매기며 “픽퍼드의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두 번째 골을 넣었다”고도 해설했다.

토트넘의 경기마다 각 선수의 활약을 평가하는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왼쪽 측면에서 끝까지 압박하는 장면으로 모범을 보여줬다. 픽퍼드의 공을 빼앗아 득점까지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올 시즌 리그 2경기 만에 멀티골을 신고한 손흥민은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1만77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5.8%가 손흥민을 최고 활약을 보여줬다고 선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 드닷컴도 손흥민에게 평점 9.05를 매겼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타구에 얼굴 맞은 네일, 턱관절 고정 수술... KIA 악재 어찌나

프로야구 정규리그 24경기를 남긴 선두 KIA 타이거즈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팀의 1선발 투수로 뛰어온 제임스 네일(사진)이 24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멧데이비스의 타구에 얼굴을 맞았다.

네일은 얼굴을 감싼 채 더그아웃으로 뛰어갔다. KIA 구단은 25일 네일이 전날 삼성창원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 결과 턱관절 골절 소견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턱관절 고정 수술을 한다고 전했다.

수술 후 경과를 봐야 구체적인 재활 기간을 알 수 있다고 KIA 구단은 덧붙였다. 게다가 타구에 안면을 얻어맞은 공포감에 네일에게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다.

시즌 70승 고지에 선착해 한국시리즈 직

행 확률을 76.5%로 끌어올린 KIA는 7년만의 정규리그 1위 확정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펼칠 무렵 네일의 이탈이라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선발진에 믿을만한 투수로 베테랑 양현종과 에릭 라우어만 남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통산 36승을 거둔 라우어가 한국 무대 3경기에서 날뛰기 투구로 불안

감을 못 지운 터라 사실상 가장 신뢰할 만한 투수는 양현종뿐이다.

술한 어려움을 헤치고 1위를 질주하는 KIA는 선발 투수의 줄부상으로 5월 이래 마운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야심 차게 영입한 1선발 투수 윌 크로우가 5월 초순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나자빠졌다. 4선발 투수 좌완 이의리는 왼

쪽 팔꿈치에 메스를 대기로 하고 5월 말 시즌을 조기에 접었다.

5선발로 로테이션을 든든하게 지키던 좌완 윤영철마저 7월 중순 척추피로골절 증세로 이탈했다. 애초 3주 재활을 목표로 했으나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이후 네일과 양현종이 규정 이닝을 채우고 선발진의 양측으로 맹활약하다가 네일마저 쓰러져 이젠 양현종이 황동하, 김도현 등 젊은 후배들을 이끌고 잔여 경기를 풀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